

자신의 무죄 주장하는 남자, 과연 진실은?

영화극장 '프리즈 프레임'(KBS1·16일 새벽 0시30분)



톱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합작으로 만든 범죄 스릴러 영화. 시네스 영화계 경쟁부문에 초청되고, 각종 영화제에서 촬영상, 미술상 등을 수상하며 완성도를 증명받았다. 자신의 몸에 카메라를 달고도 수십 대의 카메라를 주위에 설치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강박적인 주인공의 행동을 통해, 기계 기록에 의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진실'을 쫓아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작품. 영화는 인간의 어두운 본성 중 하나인 '관음'에도 맞닿아 있다.

주연 리에반스는 ‘마우스 헌트’ ‘제 5원소’ 등에 출연했던 영국 출신 코미디 배우. 카메라와 기록에 집착하는 편집증적인 캐릭터가 궁지에 몰리는 과정을 실감나게 연기했다. 눈썹을 밀면서까지 역할에 몰입했다고 한다.

손 베일은 일가족 살인 혐의의 누명을 쓰고 기소되었다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뒤로는, 또다시 그런 누명을 쓸 수도 있다는 강박에



예술촌 만들고 싶은 부부의 꿈

심성 일요일(KBS2·오전 8시)=도자기의
고장, 전남 강진에서 2대째 자기를 빚고 있
는 윤영대(30)·오길수(28) 부부를 만난다.
어릴 적 도자기가 싫어 아버지의 작업장 근
처에도 오지 않았던 윤영대씨. 도시로 떠나
하고 싶은 관광 일을 했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4년 전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지나 동생처럼 돌봐주라

주말연속극 '누나'(MBC·오후7시50분)=
지나의 요청으로 승주는 다시 지나 과외 일
을 하게 된다. 민준이 모는 승주에게 돈은 그
냥 돈일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
라고 말한다. 또 승주가 두고 갔던 돈 봉투를

던지듯 건네주며 다시는 이런 호기를 부리지도 말고, 지나는 엄마도 형제도 없는 애니 동생처럼 돌봐주라고 부탁한다.

‘장 끌로드 반담’표 액션 영화



서든 데쓰(채널CGV·밤 10시)=아이스하키 결승전이 열리는 경기장에서 테러리스트에게 인질로

잡힌 팔과 부통령을 구하기 위해 두뇌 게임을 펼치는 전직 소방대원의 활약을 그린 액션 스릴러. 매 화재 사건마다 뛰어난 활약을 펼치던 소방수 대런 맥코드(장 끌로드 반담 분)는 대형화재 사건에서 어린 소녀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소방수를 그만두고 히키 경기장의 화재 감시원으로 일하게 된다.


창업 24년 컴퓨터로 귀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보청기**”
국제보청기가 **자연의 소리**를 들려 드립니다.

서석점 (동구청 남동성당사이) (062) 227-9940	충장점 (충파건너편) (062) 225-9970
---	--------------------------------------

케이블·위성TV 15일

[illegible]